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음 3월 30일) 제32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8일 서울 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심사에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 가운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TF팀과 함께 PT발표 최종 리허설을 하며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김관영 도지사,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총력' "새만금 특화단지 최적"

발표심사 직접 PT 발표... 밸류체인 고도화 등 4대 추진 전략·14대 과제 등 "최근 3년간 폭발적인 발전 거듭... 전북의 100년 미래 앞당길 절호의 기회"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을 펼쳤다' 특히, 김 지사는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심사에서 직접 PT를 발표하며, 전라북도 새만금이 가진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최적임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도가 그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추진해 온 내용을 설명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의 비전을 밝혔다. 아울러,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를 비롯해, △초격차 기술 확보 R&D 혁신 허브 구축, △글로벌·초광역 연계 인재양성 기반 구축, △기업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4대 과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현장에서는 그동안 전북도가 추진해 온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있었으며,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주목을 끌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3년간 약 80만 평 규모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은 전북의 100년 미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2월 27일 사업 계획서 제출 후 5월 1일까지 평가 지

표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며, 5월 15일 발표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발표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같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했으며,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김관영 지사는 주말과 새벽시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하며 이번 PT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 평가 결과는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며, 전북도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학생 개인 역량 강화에 중점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추진

〈B〉

도교육청, 이리모현초·화산중 등 2곳 'IB준비학교'로 운영
이달 중 IBO와 의향서 체결 나서... 내년부터 2년간 내실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IBO와 의향서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IB교육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다. IB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적용해 학교와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 대구와 제주가 도입했다. IB준비학교는 학교(학년)단위로 IB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IB 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2023년 전

북미래준비학교 중 이리모현초와 화산중학교 2곳에서 운영중이다. 특히 올해는 IB 도입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TF 구성·운영,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교육전문직 연수 교원 연수, 교사 연수 등을 운영한다. 이어 2024~25년에는 IB 운영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IB 후보학교와 인증학교는 철저한 준비와 교원 연수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므로 교육공동체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되다'

선운산 천마봉·병바위·고인돌군 등 고창 13곳 지정
고창군, 유네스코 자연환경 프로그램 3개 모두 갖춰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유네스코 세계자연환경 프로그램 3개(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를 모두 보유하며 '천혜의 환경'을 전세계에 알리게 됐다. 18일 전북도와 고창군 등에 따르면 이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총회를 열고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했다. 국내 5번째 지질공원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형·지질 유산을 보존하고, 동시에 연구·교육 등에 활용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에는 고창군 13곳 등 총 32곳의 지질 명소가 포함됐다. 고창군에선 선운산의 천마봉 마애불, 진흥굴, 병바위, 소오산 용암돌, 송계리 시생대 편마암, 명매기생, 고인돌군, 명사리해변, 구시포 가파도, 웨니아, 대죽도, 고창갯벌이 지정됐다. 드넓은 서해와 아득히 긴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고창 병바위. (사진=고창군청 제공)

장쾌하게 펼쳐있으며, 시대부터 제4기의 다양한 시기에 화산암과 퇴적암으로 만들어진 지질·지형의 발달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고창군은 2017년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국내 9번째 인증을 받은 후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위한 탐방로 구축, 신규 체험·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질공원 탐방 안내 체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 도보여행길(지오트레일)을 만들고, 운곡습지 생태공원 지질체험 학습장과 지오드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녀노소, 전세대에 쉽게 찾고 즐기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 '신선이 놀다가 술상을 뒤집자 술병이 거꾸로 꽂혔다'는 설화가 전하는 병바위는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명승으로도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네스코 자연환경 프로그램 3개(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세계지질공원: 전북 서해안, 생물권보전지역: 행정구역 전체)를 모두 갖는 도시가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수 천년전 전부터 현재까지 지중과 해안, 기후 등의 신비로운 변화가 바다, 산, 강, 들, 관 곳곳에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곳이다"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마련되고,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1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3
2023. 6. 2. - 6. 6.
www.mjff.or.kr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 후원 전라북도 | 무주군 | 전주 MBC | kofic | 한국문화재단 | 협찬 steamcase | MABITA | HIBROW | RMCW | M/V | 전주(전주) | M&A